

‘헬조선’ 산다는 청춘에게 3인 멘토 “여실지견하라”



대한불교청년회는 11월 28일 전주서청 강당에서 3인 3색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멘토로는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과 윤성식 고려대 교수,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 대표가 참여했다.

대불청, 11월 28일 전주서 3인 3색 토크 콘서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우리나라 현실을 지옥에 비유한 ‘헬조선’, ‘수저계급론’과 같은 청년들의 삶을 비판적인 의미를 내포한 신조어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2030 청년 대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할 ‘3인 3색 토크콘서트’가 전주에서 열렸다. 강의 시작과 중간에는 ‘포스트하지만’ 밴드의 노래공연이 이어졌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주호)는 11월 28일 전주서청강당에서 ‘소통’과 ‘생활’ 그리고 ‘힐링’을 주제로 3명의 강연과 즉문즉답 형태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부처님의 부자수업〉 저자 윤성식 고려대 교수와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 장재열 대표,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이 강사로 나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며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는 ‘뉴 노멀시대, 1대 99세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윤 교수는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를 수용소를 예로 들어 “수용된 사람들 중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보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며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현시대를 低 성장, 低 소득, 低 수익률의 경기침체가 반복없이 지속되는 길고 지루한 저성장의 시대인 뉴노멀시대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뉴노멀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층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또 “부처님께서는 농사나 목축, 장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되 절제된 소비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돈에 집착하면 가난한 사람도 무소유가 아니며 부자도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 무소유의 삶이다”며 “열심히 돈을 벌되 소비는 무소유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모든 것의 현상과 실제 현상과 그 본질을 아는 지혜인 ‘여실지견(如實知見)’을 강조했다.

정목 스님·윤성식 교수·장재일 대표
소통·생활·힐링 주제로 토크 진행해
‘책임있는 삶’ 강조... 배려심이 중요
참가 학생 ‘고민 해결 계기됐어요’

윤 교수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읽어야 한다, 명상, 참선 등을 통해 바른 생각과 안목을 길러야 한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두 번째로 무대에 나선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 장재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년들을 위해 상담소를 열게 된 계기를 진솔하게 이야기 했다.

그는 “3수 끝에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 자신은 오히려 행복하



토크 콘서트 중간에는 ‘포스트하지만’ 밴드 공연이 펼쳐졌다.



토크 콘서트 관객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한 대학생 참가자가 질문을 마치고 웃어보이고 있다.

지 않았고 오히려 우울증까지 앓아야 했다”고 자신의 청년시절을 회상했다.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스스로 답하면서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청춘상담소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훌륭한 상담가는 과거 절실하게 상담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젊은이들은 고민을 해결한다기 보다는 단지 자신의 고민을 진술하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상담소를 찾고 있다”며 “기성세대들은 단지 젊은이들의 투정오만만 받아들이지 말고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힐링 멘토 정목 스님은 부처님의 탄생설화를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해결에 나섰다.

스님은 “불교청년들은 불교라는 시각과 사찰이라는 영역에만 매여있어서 안 된다”며 “은 세상 밖으로 나가 필요한 곳에서 사람과 만나고 경청하고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처님의 탄생설화 중 아기부처님이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은 것을 비유하며 이 설화의 진위여부를 떠나 그것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일곱 걸음은 육도윤회와 마지막 부처의 세계를 이야기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들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대한민국이 청년들에게는 지옥의 불구덩이와 다름이 없을 것이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는 아수라 세계와 다름이 없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것도 아귀세상이며 자비심이 아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축생세계와 다름이 없다. 인간세상은 많은 자유를 누리며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된다. 책임을 지게 될 때 또 다

른 성장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스님은 이어 부처님의 일곱번째 걸음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덕행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은 한 없이 잔인해질 수 있다. 나의 신념과 가치관이 절대적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욱도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며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나와 또 다른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덕행을 쌓을 것을 권했다. “말이나 행동 생각으로 덕행을 쌓아야 한다.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할 때 번뇌와 고통이 생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고민은 번뇌가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순간, 생각 속에서 다른 이를 이해하고 덕행을 쌓음으로써 자기 가슴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강연 후에는 3명의 강사들이 즉석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 청년의 “꿈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는 말에 대해 정목 스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꿈꾸어 보라고 조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저계급론에 대해 윤 교수는 강의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을 길러 근면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강의를 경청한 정승(23, 전북대) 학생은 “평소 이런 강의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멘토 3명의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듣게 돼 너무 좋았다. 요즘 고민이 조금 늘고 있는데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네팔 성지순례

2016년 2월 26일(금) ~ 3월 7일(월) 11일

INDIA NEPAL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는 행복
나를 다시 찾는 순례길

순례지도법사 - 법현스님

- 활동사항
 - 대한불교대교종 열린선원 원장
 - BTN 즉문즉설 출연 방송중
 - 저서 <추위로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의 다수
 -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순례지도법사 - 효진스님

- 활동사항
 -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행복도량 광덕사 주지
 - 마을치유 MOST 행복센터 평생교육원

인도·네팔 성지순례 특별 동행

힐링 명상 음악가 김태곤 기수, 보건학 박사

<동행> 마음 치유 명상 힐러 김기호 원장

오감만족에만 그치지 않는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느끼는 음악을 통해 청정함과 참 자아 찾기 그리고 기계적이 아닌 자연친화적 저절로 흔들리는 참 생명력

• 히트곡 : 망부석, 송학사 등

‘심신건강증진 음악으로 긍정에너지의 활기’를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청춘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인생은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늙지 않습니다.
한해가 흘렀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또 다른 청춘이 시작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하루입니다.

• 아름다운 삶 교육원 원장 및 대표교수

주요 여정

인도의 수도 델리
아그라 : 타지마할
신들의 도시 바라나시
인도 네팔 불교성지
룸비니, 부다가야,
사르나트, 영축산,
쿠시나가르,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

보드가야 대각 성도지 기도순례(성도제일)

- 출발날짜 : 2016년 1월 13일(수) ~ 1월 20일(월) (8일)
- 접수마감 : 2015년 12월 24일 까지
- 지도법사 : 항림사 주지 경진스님
- 순례비용 : 235만원

나는 붓다를 느끼려 인도-네팔로 간다!

- 출발날짜 : 2016년 3월 18일(금) ~ 3월 27일(금) (10일)
- 순례비용 : 239만원
- 부처님 생지 - 아그라 - 델리

접수기간 : 2016년 2월 5일 (금) 까지

- 동참금 : 275만원
- 신청금 : 50만원
- 1차 접수 : 265만원 (12월 30일까지)
- 2차 접수 : 275만원 (2월 5일까지)
- 여권사본과 신청금을 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여권사본 보내는 방법 <
- 팩스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 fung101
- 문의접수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412호 불타여행사 TEL : (02) 733-9317 / FAX : (02) 732-9317
- 문의하시면 자세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불타 순례여행 BUIDDHA BOHEMIAN